

이해 및 산출실험과 코퍼스 분석에 나타난 한국어 재귀사의 결속 양상*

김만경** · 이미선***

(한양대학교)

Kim, Mankyung & Lee, Miseon. (2022). Binding of Korean reflexives in a comprehension task, a production task, and corpus analysi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0(3), 1-20. It is well known that the binding domain of Korean reflexives is ambiguous. A few psycholinguistic studies have shown that *caki* and *casin* tend to prefer a long-distance antecedent while *caki-casin* strongly prefers a local antecedent.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pattern of binding preference has been obtained only using comprehension tasks. To assess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reference pattern,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antecedent preference of Korean reflexives in a comprehension task, a production task, and a corpus analysis. The comprehension task showed similar binding patterns for *caki*, *casin*, and *caki-casin* to those of previous studies. Conversely, the production task and the corpus analysis revealed considerably different antecedent preferences for *caki* and *casin*. The task-related difference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pragmatic and morphosyntactic factors involved i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Modality (speaking vs. writing) can also make differences in the binding preference patterns.

주제어(Key Words): 한국어 재귀사(Korean reflexives), 결속영역 중의성(ambiguity of binding domain), 이해실험(comprehension experiment), 산출실험(production experiment), 코퍼스 분석(corpus analysis)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700000003135).

** 제1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한국어의 재귀사(reflexives)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연구들은 대체로 Chomsky의 결속이론(Binding Theory, Chomsky, 1980, 1981, 1986)에 기반한다. 결속이론은 재귀사, 대명사(pronominal), 지시표현(R-expression)의 명사구들과 선행사의 관계를 지배와 결속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설명한다. 지시표현의 경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가 그 대상이며, 지시표현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필요 없다. 반면, 대명사와 재귀사는 독립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행사의 존재는 필수적이며, 대명사와 재귀사는 선행사와 서로 다른 관계적 속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1a)에서 *Tom, David, Susan*은 각자 독립된 지시표현으로서 선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1b)의 대명사 *him*은 선행사 *Tom*과 연결되어 의미를 갖게 되고, (1c)의 재귀사 *himself*의 의미는 선행사 *David*를 통해 부여된다. 이처럼 대명사와 재귀사는 선행사와 동일한 지시대상을 갖는데, 결속이론에서는 이를 공지시(coreference)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 (1) a. 지시표현: Tom thinks David likes Susan.
 b. 대명사: Tom_i thinks David likes him_i.
 c. 재귀사: Tom thinks David_i likes himself_i.

선행사와 명사구의 결속관계를 다루는 결속이론은 명사구와 잠재적 선행사의 관계를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로 정의한다. 지시표현은 지배범주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결속되지 않는 반면, 대명사는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어서는 안 되고, 재귀사는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속 관계는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언어보편적 법칙이지만, 지배범주의 정의는 언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이 모두 가능한 한국어 재귀사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는데, 선행사와의 결속 관계는 Chomsky의 결속이론이 정의하는 통사적 원리를 따르는 한편, 재귀사의 형태소나 재귀사가 사용되는 문맥의 화용적 정보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2006; Lee, 2008; 김원호, 2013; O'Grady, 2013). 결국, Chomsky(1980, 1981, 1986)의 결속이론만으로는 한국어의 재귀사 결속 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따라서 통사적 정보 외에도 형태적, 화용적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 재귀사 결속영역의 심리적 실재성(psychological reality)을 뒷받침하는 심리언어학적 실험연구는 주로 이해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최광일·김영진, 2003, 2007; Kim & Yoon, 2008; Kim et al., 2009; Lee, 2012; 이선영 외, 2017; Joo, 2017; 김수정 외, 2022).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는 장거리결속을,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며, '자신'은 결속영역에 선호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실험연구들이 모두 이해과제를 통해서만 재귀사의 결속현상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이 결론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해와 발화는 상이한

동기로 시작되고 상이한 처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해실험에서 관찰된 결과만으로 재귀사의 결속 양상을 모두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Clark & Hecht, 1983; Flynn, 1986; Levorato & Cacciari, 1995).

강범모(1998)의 코퍼스 연구는 이해실험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정한 실험 설계 환경에서 진행되는 이해실험과 달리 강범모(1998)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재귀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였는데, 발화에 나타난 각 재귀사의 결속 양상이 이해실험의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와 산출에서의 재귀사 결속 양상을 비교하여, 연구방법론에 따라 재귀사의 결속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어의 재귀사 결속 양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본다.

2. 선행연구

2.1. 한국어 재귀사와 영어 재귀사의 차이

한국어 재귀사와 영어 재귀사는 통사적, 형태소적, 화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통사적 측면에서, 재귀사가 선행사와 결속될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다. Chomsky(1981)의 결속원리는 ‘재귀사는 지배범주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영어 재귀사는 이 결속원리의 통사적 제약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재귀사의 선행사는 (2)에서처럼 반드시 최소 지배범주에 해당하는 CP나 DP 안에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a)의 재귀사 *herself*는 최소 지배범주인 하위 절(CP) 내에서 *Susan*과 결속할 수 있으나, 이 영역을 벗어난 *Mary*는 *herself*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2b)의 재귀사 *himself*는 최소 지배범주인 명사구(DP)를 벗어난 *Tom*과 결속할 수 없다.

- (2) a. [TP *Mary*_i said [CP that *Susan*_j criticized *herself*_{i/j}]]
 b. [TP *Tom*_i found [DP *David*'s_j picture of *himself*_{i/j}]]

한국어 재귀사는 결속영역에 대한 통사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영어와 달리 지배범주가 최소 지배범주인 내포절(CP)을 넘어서 주절까지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의 재귀사 ‘자기’는 최소 지배범주 내의 ‘미나’뿐만 아니라, 주절의 ‘영희’와도 결속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기’는 국지결속과 장거리결속이 모두 가능한 결속영역의 중의성을 갖게 된다(양동휘, 1990; 김용석, 1994).

- (3) a. 영희는 대학에 합격했다. 영희는 [CP 미나가 자기를 자랑스러워했다고] 말했다.
 b. 영희는 [CP 미나가 자기를 밀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결속영역의 중의성을 갖는 한국어 재귀사는 통사적 정보만으로는 선행사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영어 재귀사와 달리, 결속영역을 결정하고 선행사를 선택하기 위해 화용적 정보나 문장 내 동사의 의미적 정보를 활용한다(Cho, 2006; Lee, 2008; 김원호, 2013; O'Grady, 2013). 예를 들어, 위 (3)의 두 문장에서 '영희'와 '미나'는 둘 다 통사적으로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3a)의 경우, 자랑스러워할 일을 한 사람이 영희라는 문맥 정보는 '영희'가 '자기'의 선행사로 선택되어야 할 강력한 단서를 제공한다. (3b)에서도 '자기'는 '영희'를 가리키는데, 이는 내포절의 동사 '밀다'의 의미적 특성에 기인한다. '밀다'의 대상이 '밀다'의 행위주와 동일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 재귀사는 통사적, 화용적 차이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영어 재귀사와 차이가 있다. 재귀사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어 재귀사는 모두 대명사에 self가 결합된 복합형 재귀사(pronoun+self)이다. 한국어에는 단순형 재귀사 '자기', '자신'과,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한 복합형 재귀사 '자기 자신'이 동시에 존재한다(엄홍준, 2015). 복합형 재귀사와 단순형 재귀사는 형태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결속에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Reinhart & Reuland, 1993; 박강희, 2002; 박강희, 2019; 엄홍준, 2014). 복합형 재귀사는 국지결속을 하여 최소 지배범주 내의 선행사와 결속하는 반면, 단순형 재귀사는 국지결속과 장거리결속이 모두 가능하여 결속영역의 중의성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형인 영어 재귀사와 한국어 재귀사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하는 반면, 단순형인 한국어 재귀사 '자기'와 '자신'은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이 가능하여 두 개의 잠재적 선행사를 갖게 된다.¹⁾

이처럼 통사적, 화용적, 형태소적으로 영어 재귀사와 차이가 있는 한국어 재귀사는 결속 영역의 선택에 있어서 영어 재귀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어 재귀사는 통사적 제약이 약한 대신, 형태소적 정보나 문맥상의 화용적 정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 한국어 재귀사 결속영역에 대한 선행 실험 연구

재귀사의 결속과 관련된 대부분의 실험 연구들은 실험방법으로 이해과제를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다. Kim & Yoon(2008), Kim et al.(2009), Lee(2012), 이선영 외(2017), Joo(2017), 김수정 외(2022)는 오프라인 이해과제를 통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최광일·김영진(2003, 2007)은 온라인 이해과제를 사용하였다.

김수정 외(2022)를 제외한 모든 오프라인 연구는 그림과 문장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를 이용하였는데, 이때 그림은 실험문장의 재귀사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용적 정

1) 그러나 '자기 자신'이 영어 재귀사와 동일한 결속영역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자기 자신'은 주절의 주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예, "영희는 자기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보를 제공하는 문맥으로 기능한다. Kim & Yoon(2008)은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결속영역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는 성인 한국어 화자들이 ‘자기’의 경우 장거리결속을, ‘자기 자신’의 경우 국지결속을 뚜렷하게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단순형 재귀사로서 장거리결속을 예상했던 ‘자신’은 결속영역에 대한 뚜렷한 선호도를 보이지 않았다.

Lee(2012)와 이선영 외(2017)도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사용하여 ‘자기’의 결속영역 선호도를 조사하였다.²⁾ 실험 결과, 장거리결속 조건에서는 그림을 정상적으로 묘사하는 정상 문장에 대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국지결속 조건에서는 문장에 대한 판단 정확도가 낮았다. 이는 피험자들이 ‘자기’를 국지결속이 아닌 장거리결속으로 주로 처리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Joo(2017)는 그림-문장 일치 여부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자기’와 ‘자기 자신’의 결속영역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자기’는 장거리결속 조건(91%)과 국지결속 조건(73%)에서 모두 허용되었으나, 장거리결속 조건에서 정확도가 더 높았다. 반면,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 조건에서만 허용되었다. Kim et al.(2009)도 그림-문장 일치 여부 판단 과제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결속영역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자기’는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였는데, Joo(2017)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Joo의 실험에서는 국지결속도 허용되었으나, 이 실험에서는 국지결속 조건에 대해 24%의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반대로 ‘자기 자신’은 장거리결속 조건에서 15% 정확도, 국지결속 조건에서 94% 정확도를 보였다. ‘자신’은 장거리결속(65%)과 국지결속 조건(49%)에서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다.

김수정 외(2022)도 오프라인 이해실험을 통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결속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다른 오프라인 이해실험 연구들과 달리 4지선다형 과제를 사용하고, 어떤 형태로든 문맥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험 결과, ‘자기’는 장거리결속을 선호하고,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신’의 결속영역 선호가 없다고 보고한 Kim et al.(2009)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자신’도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광일·김영진(2003, 2007)은 위에서 살펴본 이해연구들과 달리 온라인 읽기 이해과제를 사용하였고, 문맥 정보 없이 ‘자기’와 ‘자신’이 포함된 실험문장만 제시하였다. 최광일·김영진(2003)은 자기조절읽기 과제(self-paced reading task)를 사용하여 장거리결속 조건과 국지결속 조건에서 ‘자기’와 ‘자신’의 읽기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기’와 ‘자신’ 모두 내포질의 주어를 선행사로 취하는 문장에서보다 주절의 주어를 선행사로 취하는 문장에서 빠른 읽기 시간을 보였다. 즉, ‘자기’와 ‘자신’이 둘 다 장거리결속을 선호한 것이다. 최광일·김영진(2007)은 ‘자신’이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결과가 실험방법 상의 결함일 가능성을 인지하

2) Lee(2012), Joo(2017), Kim et al.(2009)의 경우, 통제집단으로 참여한 성인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의 자료를 비교하였다.

고, 동일한 실험조건과 실험문장을 사용하여 안구운동 추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자기'는 장거리결속 조건에서 읽기시간이 더 빨라서, 명확한 장거리결속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자신'은 국지결속 조건과 장거리결속 조건에서 읽기시간에 차이가 없었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한다. 즉, '자기'는 장거리결속을 선호하고,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며, '자신'은 결속영역의 선호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이해과제라는 실험 환경에서 한국어 재귀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발화에서 한국어 재귀사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한국어 재귀사의 보다 전반적인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화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결속 양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귀사의 발화를 조사한 실험연구는 없고, 강범모(1998)의 코퍼스 분석이 유일한 발화연구이다. 강범모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언어 연구도 중요하지만, 언어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언어 사용에 기반을 둔 코퍼스 연구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특정한 실험 설계 환경에서 진행되는 이해연구와 달리 자연적인 환경에서 사용된 재귀사를 분석하였다. 코퍼스 분석 결과, '자기'의 경우, 장거리결속 선호가 뚜렷했던 이해실험 결과와는 달리,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으로 사용된 빈도수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자기'의 결속영역 선호가 없음을 나타낸다. 한편, '자신'은 주로 국지결속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체적인 빈도수에 있어서도 나머지 재귀사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자기 자신'은 대부분 국지결속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코퍼스 분석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이해실험들의 결과, 즉 '자기'는 장거리결속을 선호하고 '자신'은 결속영역에 선호도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현저하게 다르다. 이 결과는 발화와 이해에서, 또는 실험 환경에 따라 재귀사의 결속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3. 실험연구: 이해실험, 산출실험, 코퍼스 분석

재귀사 결속영역에 대한 소수의 실험연구들은 일견 공통된 결과를 보고하여 한국어 재귀사의 결속영역 속성을 파악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해실험이 아닌 코퍼스 발화자료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이해와 발화에서 재귀사가 처리되는 과정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Flynn, 1986; Levorato & Cacciari, 1995). 본 연구에서는 이해실험, 산출실험, 코퍼스 분석을 통해, 한국어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결속영역이 연구방법론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이해실험: 선다형(選多型) 과제

3.1.1. 실험 방법 및 절차

장기간 외국 체류 경험이 없는 만 18-40세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 7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PsyToolkit(Stoet, 2010)을 사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방식의 실험이었기 때문에, 한 문항이라도 제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나라도 답변을 누락한 26명의 피험자는 실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44명의 참가자의 데이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남성 21명, 여성 23명, 평균연령=만 31세)

본 이해실험은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각각 어떤 결속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실험문장은 재귀사의 결속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적, 화용적 요인을 통제하였다. 특히 동사는 재귀사 해석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 동사만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4a)에서 내포절의 주어 ‘미나’는 스스로를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밀었다’의 목적어인 재귀사 ‘자기’는 ‘철수’만 선행사로 취할 수 있다. 반면, (4b)에서 동사 ‘사랑한다’는 ‘철수’와 ‘미나’를 모두 선행사로 취할 수 있는 중립적인 동사이다.

- (4) a. 철수는 미나가 자기를 밀었다고 말했다.
- b. 철수는 미나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실험 자극으로 총 16개의 중립적 동사와 4가지 유형의 대용어(‘자기’, ‘자신’, ‘자기 자신’, ‘개’)를 결합하여 총 64개의 실험문장을 완성하였다. ‘개’는 일종의 3인칭 대명사로서, 대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보다 다양화함과 동시에, 선택지의 ‘제3자’가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포함하였다. 실험은 총 4세트로 구성되었으며, 각 실험참가자에게 이중 1세트를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각 실험 세트는 16개의 실험문장과 16개의 채움문장 (filler)을 합하여 총 32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민수와 영희가 대화를 하고 있다.
 민수는 영희가 자기를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영희가 비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 민수
 (2) 영희
 (3) 제3자

그림 1. 이해실험에 사용한 실험문장 예시

각 실험 항목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장은 의미적으로 중립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장거리결속 또는 국지결속을 유도하는 문맥 정보를 최소화하였다. 두 번째 줄에 실험문장을 제시하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개'의 4가지 대용어 중 하나를 포함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재귀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고, 이어 3개의 선택지가 주어졌다. 각 실험 항목에 대해 30초의 제한 시간을 두었으며, 제한 시간 초과 시 자동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3.1.2. 실험 결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와 '자신'은 모두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였고,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교차분석(Crosstabs)을 실시한 결과, 각 재귀사의 결속영역 선호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145.890$,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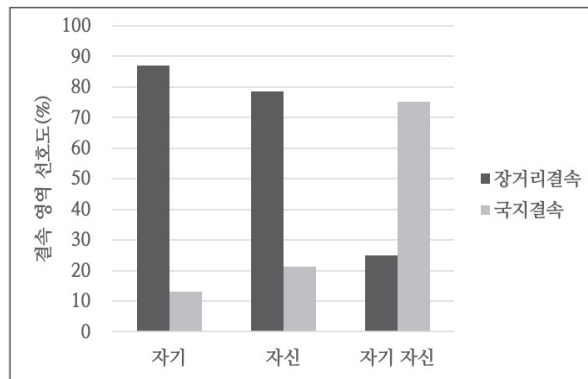


그림 2. 이해실험 결과: 각 재귀사의 결속영역 선호도

한편, 결속영역 선호도의 양상이 유사한 '자기'와 '자신'은 결속영역 선호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chi^2=3.406$, $p=.065$). 그러나 관측빈도수와 기대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두 재귀사의 결속영역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듯이, 장거리결속의 상대적 선호도의 경우, '자기'의 관측빈도수(124)가 기대빈도수(118.2)보다 5.8이 더 크고, '자신'의 관측빈도수(114)는 기대빈도수(119.8)보다 5.8이 더 작았는데, 이런 차이는 '자기'가 '자신'보다 장거리결속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반면, 국지결속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자신'이 '자기'보다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자기'와 '자신'은 둘 다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지만, '자기'의 장거리결속에 대한 선호도가 '자신'의 장거리결속에 대한 선호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면, 국지결속에 대한 선호도는 '자신'이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이다.

표 1. 이해실험 결과: 교차분석

		장거리결속	국지결속
자기	관측빈도수	124	18
	기대빈도수	118.2	23.8
자신	관측빈도수	114	30
	기대빈도수	119.8	24.2

3.2. 산출실험: 빈칸채우기 과제

3.2.1. 실험 방법 및 절차

장기간 외국 체류 경험이 없는 만 20-32세의 한국어 모국어 화자 2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남성 4명, 여성 25명, 평균연령=만 23세). 이 참가자들은 모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이해실험에 참가하지 않았다.

산출실험은 재귀사 발화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실험환경에서 코퍼스와 같이 자연스러운 음성발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어 산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가능한 자연스러운 산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재귀사 사용이 자연스러운 문맥을 제시하고 실험참가자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빈칸을 채워 넣도록 하였다. 장거리결속 조건(5a)에서는 주절의 주어('빛나')가 선행사가 되는 문맥을 제시하였고, 국지결속 조건(5b)에서는 내포절의 주어('지수')가 선행사가 되는 문맥을 제시하였다.

(5) a. 장거리결속 조건

빛나와 인호가 데이트를 한 지 1년이 지났다.

인호는 크리스마스 때,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예쁜 반지를 빛나에게 사 주었다.

빛나는 인호가 _____을/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b. 국지결속 조건

지수가 그동안의 실패를 극복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였다.

준호는 지수가 흐뭇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지수가 _____을/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다.

이해실험에서 사용한 16개의 중립적 동사와 2개의 결속영역 조건(장거리결속, 국지결속)을 결합하여 32개의 실험 항목을 완성하였다. 이 실험 항목을 2세트로 나누고, 1세트씩 각 실험참가자에게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각 실험 세트는 실험문장 16개와 채움문장 16개를 합하여 총 32개의 문장으로 구성하였다.

3.2.2. 실험 결과

산출된 각 재귀사의 결속영역 선호도를 교차분석한 결과, 재귀사 종류에 따른 결속영역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chi^2=80.050, p=.001$). 그림 3을 보면, 이해실험과 동일하게, ‘자기’와 ‘자신’은 모두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였고,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이해실험과 달리, ‘자기’와 ‘자신’의 상대적 결속영역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6.339, p=.012$). 이 차이는 ‘자신’의 국지결속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즉, 이해와 산출에서 ‘자기’와 ‘자신’이 둘 다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동일한 결속 양상을 보였지만, 산출실험에서는 ‘자신’의 국지결속의 성향이 이해실험에서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자기’와 ‘자신’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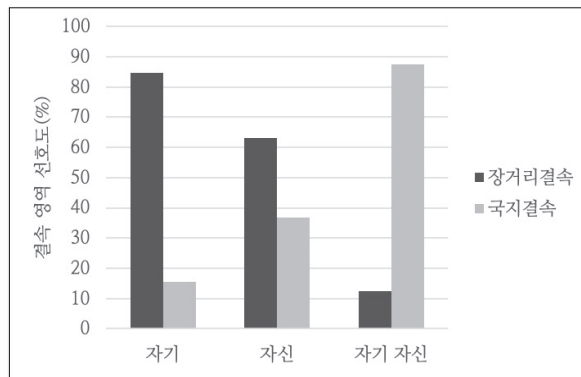


그림 3. 산출실험 결과: 각 재귀사의 결속영역 선호도

‘자신’이 ‘자기’에 비해 국지결속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양상은 표 2에서처럼 관측빈도수와 기대빈도수 비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의 경우 장거리결속의 관측빈도수(33)가 기대빈도수(26.1)보다 6.9가 더 높았으나, ‘자신’의 경우에는 국지결속의 관측 빈도(96)가 기대빈도수(89.1)보다 높았다.

표 2. 산출실험 결과: 교차분석

		장거리결속	국지결속
자기	관측빈도수	33	6
	기대빈도수	26.1	12.9
자신	관측빈도수	173	96
	기대빈도수	179.9	89.1

이러한 결과는 각 조건별 산출 빈도수를 보여주는 표 3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기’와 ‘자신’은 둘 다 장거리결속 조건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지결속에 사용된 빈도와 비교해 보면, ‘자신’에 비해 ‘자기’가 장거리결속으로 사용된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의 경우, 장거리결속(84.6%)이 국지결속(15.4%)에 비해 5.5배 많은 반면, ‘자신’의 장거리결속(64.3%)은 국지결속(35.7%)에 비해 약 1.8배 많은 것이다. 이 결과는 ‘자기’와 ‘자신’의 장거리결속 선호 양상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3. 산출실험 결과: 조건별 재귀사 산출 빈도

문맥 조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기타
장거리결속	33 (84.6%)	173 (64.3%)	4 (6.7%)	21
국지결속	6 (15.4%)	96 (35.7%)	56 (93.3%)	93
합계	39	269	60	114

위 산출 빈도 결과는 이해실험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어 재귀사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자신’의 빈도수가 다른 재귀사 사용 빈도보다 높은 것이다. 이는 재귀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재귀사에 비해 ‘자신’이 선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3.3. 발화 연구: 코퍼스 분석

3.3.1. 연구 방법

자연발화에 나타나는 재귀사의 결속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음성발화 코퍼스인 「서울 코퍼스」(Yun et al., 2015)를 분석하였다. 「서울 코퍼스」는 총 231,632 어절로 구성된 규모가 작은 코퍼스이나, 10대부터 40대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어 화자 40명의 자연스러운 음성 발화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각 연령대별로 남녀 각각 5명씩, 10명의 화자들이 각각 1시간 정도 진행한 인터뷰 자료로서, 학교생활이나 친구와 가족과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정치, 사회, 문화,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코퍼스 분석을 위해 우선 발화 전사 자료에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포함된 발화(utterance)를 검색하였고, ‘자기’가 포함된 발화 352개, ‘자신’이 포함된 발화 40개, ‘자기 자신’이 포함된 발화 3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395개의 발화가 사용된 문맥을 고려하여, 각 재귀사의 실제 용례를 분석하였다. ‘자기 계발’, ‘자기 자랑’처럼 다른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로 사용된 경우에는 독립된 하나의 명사로 취급하여 재귀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앞서 기술한 이해실험과 발화실험에 사용된 복문 구조는 코퍼스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단문과 복문을 모두 분석하였고, 단문의 경우 절의 경계를 기준으로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을 구분하였다. 즉, 절의 경계 안에 선행사가 있으면 국지결속으로, 절의 경

계 밖에 선행사가 있으면 장거리결속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6)은 단문이고, 이 문장이 사용된 문맥에 비추어, '애'를 '자기'의 선행사로 확정할 수 있다. 이 선행사가 절의 경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자기'와 '애'의 관계는 국지결속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또 다른 단문인 (7)의 경우, '자기'의 선행사는 절의 경계 안에 있는 '마피야'가 아니라 그 경계 밖에 있는 다른 명사이다. 이런 경우는 장거리결속으로 분류하였다.

(6) 너무 또 애_i가 자기_j를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7) 마피야_i가 그럼 자기_j를 죽일 거 아니에요.

한국어의 특성 상, 선행사가 항상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는 *pro* 탈락 언어(*pro-drop language*)로서 (8)과 같이 주어_i가 탈락할 수 있고(Rohrbacher, 1999), 자연발화로 구성된 「서울 코퍼스」에서도 자주 관찰되었다. 분석 대상인 발화에 주어_i가 생략된 경우, 문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주어를 복구한 후,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코퍼스 원문에서는 복문인 (8a)에서 주절의 주어_i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발화가 나타난 문맥을 통해 '생각하다'의 주어_i가 '딸'인 것을 파악하였고, '딸'을 주절의 주어_i로 복구하였다. 결국, '딸'이 아빠를 본인의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기'의 선행사는 '아빠'가 아닌 '딸'이며, 이는 장거리결속으로 분류된다. (8b)의 경우, 문맥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화자가 '사랑하지 않다'의 주어_i이고, '자신'이 생략된 주어_j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 '제가'를 복구하여 '자신'의 선행사로 확정하였고, 이는 국지결속에 해당한다.

(8) a. (딸_i) 아빠_j가 아직까지는 자기_{i/pro}의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b. 제 작은 눈을 개성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좀 그만큼 (제가) 자신_i을 사랑하지 않는 거 같아서...

3.3.2. 분석 결과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울 코퍼스」에서 395개의 재귀사를 확인했다. '자기'의 빈도(352)가 가장 높았고, '자신'의 빈도는 40, '자기 자신'은 3이었다. 이들 재귀사가 사용된 문맥을 분석한 결과,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각 재귀사의 결속영역은 이해실험이나 산출실험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기 자신'은 모두 국지결속으로만 사용되어, 이해 및 산출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지결속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도 대부분 국지결속(80%)으로 사용되어, 국지결속에 대한 강한 선호도를 보였다. 반면, '자기'는 장거리결속으로 사용된 경우가 51%, 국지결속으로 사용된 경우가 49%로, 특정한 결속영역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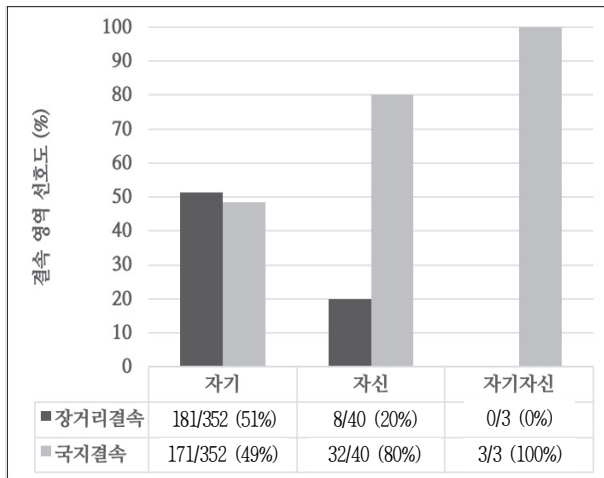


그림 4. 코퍼스 분석 결과

4. 논의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방법론을 통해 한국어 재귀사의 결속영역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법론에 따라 결속영역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기 자신’은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국지결속을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와 ‘자신’은 이해실험에서 해석되는 양상과 산출실험에서 사용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연발화 환경에서 이 두 재귀사가 사용되는 양상은 실험 환경에서 나타난 산출 양상과도 달랐다. ‘자기’의 경우, 이해실험과 산출실험에서는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퍼스 분석에서는 결속영역에 대한 선별적 선호가 없이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다. ‘자신’도 이해실험과 산출실험에서는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였으나, ‘자기’와 달리 자연발화에서는 국지결속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4.1. 이해실험과 선행연구 결과 비교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오프라인 이해실험은 모두 ‘자기’는 장거리결속을 선호하고,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신’도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해 ‘자기’와 ‘자신’의 장거리결속 선호 양상이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자기’와 ‘자신’이 모두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지만, ‘자기’의 장거리결속 선호 경향이 ‘자신’의 장거리결속 선호 경향에 비해 더 뚜렷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결속영역 선호도가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실험 설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과제를 사용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그림과 실험문장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이해과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때 그림은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결정하는 문맥을 제공한다. 따라서 문맥을 통한 화용적 정보가 재귀사의 결속영역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가 되었을 것이다. 반면, 본 실험의 이해과제는 결속영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적인 문맥을 사용하여 화용적 정보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문맥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김수정 외(2022)도 ‘자신’의 장거리결속 선호를 보여주었는데, 문맥 정보를 제시한 Kim et al.(2009)에서 ‘자신’의 결속영역 선호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과 다르다. 따라서 문맥 정보가 부재하는 조건에서 결속영역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단서에 더 의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각 재귀사의 형태소적 차이에 따라 결속영역이 달라질 가능성이다(박강희, 2002; Reinhart & Reuland, 1993). 즉, 복합형 재귀사는 국지결속을 하는 반면, 단순형 재귀사는 국지결속과 장거리결속이 모두 가능하여 결속영역의 중의성을 갖는다. 따라서, 복합형 재귀사인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하고, 단순형 재귀사 ‘자기’와 ‘자신’은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이 가능하다.

한편, 결속영역 중의성을 갖는 단순형 재귀사가 장거리결속을 더 선호하는 것은 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해실험에서 ‘자기’와 ‘자신’이 둘 다 장거리결속, 즉 주절에 위치한 선행사를 선호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언급된 개체(entity)에 부여되는 현저성(prominence)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 문장 내에서는 주어 자리에 나오는 개체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개체보다 현저성이 높고(Brennan, 1995), 문장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개체가 두 번째로 언급되는 개체보다 현저성이 더 높다. 따라서 실험문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주절의 주어(장거리결속)가 내포절의 주어(국지결속)에 비해 현저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그 영향으로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최광일 · 김영진, 2003; Patterson, 2012). 또한 첫 번째 명사와 결합한 주제조사(Topic marker)는 현저성을 강화할 수 있다(함병호, 2018, 목정수·조서희, 2019). 주제조사 ‘은’, ‘는’은 문장에서 화제나 주제를 제시해 줌으로써 주격조사 ‘이’, ‘가’보다 더 많은 화용적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이 조사가 문장에서 첫 번째로 언급된 개체와 결합하면 그 명사의 현저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현저성의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현저성을 고려한 실험 설계를 통해 현저성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2. 이해실험과 산출실험 결과 비교

산출실험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이해실험의 결과와 동일하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은 이해와 산출에서 모두 국지결속을 강하게 선호하는 반면, ‘자기’와 ‘자신’은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결속영역 중의성을 갖는 ‘자기’와 ‘자신’이 산출실험에서도 장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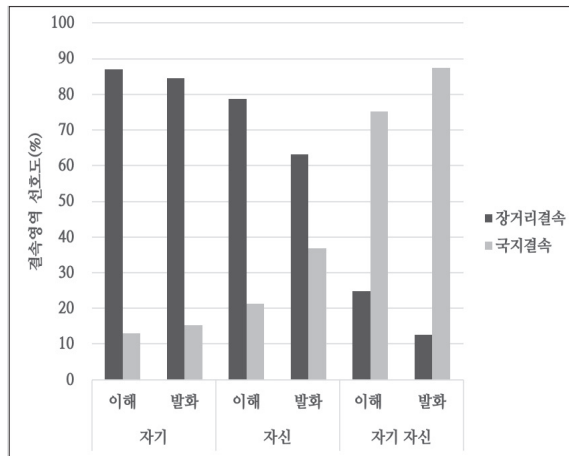


그림 5. 이해실험과 산출실험의 재귀사 결속영역 선호도 비교

리결속을 선호하는 이 결과는 앞서 논의한 현저성의 영향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산출실험은 이해실험과 달리 이미 언급된 개체 중에서 선행사를 선택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저성이 높은 주절의 주어를 선행사로 선택한 결과라기보다는 문맥을 통한 화용적 정보를 활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출실험에서 주목할 또 다른 결과는 ‘자기’와 ‘자신’이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p=.012$)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해실험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림 5를 보면, ‘자기’의 경우 이해와 발화에서 모두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이 크게 차이 나는 반면, ‘자신’의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 간의 차이는 이해실험에 비해 산출실험에서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이해실험과 산출실험의 방법론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산출실험과 이해실험의 가장 큰 차이는 화용적 정보의 유무로, 이해실험과 달리 산출실험에서는 장거리결속 또는 국지결속을 유도하는 문맥을 실험문장에 앞서 제시하였다. 따라서, ‘자기’와 ‘자신’은 둘 다 결속영역의 중의성을 갖지만, 산출 시 화용적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자기’에 비해 ‘자신’은 화용적 정보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는 박강희(2002, 2019)의 주장대로 ‘자기’와 ‘자신’이 통사적, 화용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의와 실험적 증거가 더 필요하다.

4.3. 산출실험과 코퍼스 분석 비교

산출실험과 코퍼스 분석은 모두 재귀사의 발화를 볼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두

연구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은 이해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출실험과 코퍼스 분석에 모두 국지결속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기’와 ‘자신’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산출실험에서는 둘 다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연발화 코퍼스에서 ‘자기’는 결속영역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차이도 연구방법론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산출실험에서는 장거리결속 조건과 국지결속 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각 조건에서 어떤 재귀사가 산출되는지 조사할 수 있었지만, 코퍼스는 자연발화이기 때문에 두 조건의 수를 통제할 수 없었다. 또한 산출실험의 실험문장과 같은 복문은 자연발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단문이 절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 단문들에서 재귀사는 주로 해당 절 안에 있는 주어와 결속했기 때문에, ‘자기’와 ‘자신’의 국지결속 경우가 증가하였다. ‘자기’의 경우 장거리결속을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자기’보다 국지결속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자신’은 그 성향이 더욱 강화되어 국지결속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속영역 선호 양상은 강범모(1998)의 코퍼스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각 재귀사의 빈도수는 강범모의 분석 결과와 달랐는데, 강범모 연구에서는 ‘자신’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코퍼스에는 ‘자기’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빈도수의 차이는 분석 대상인 두 코퍼스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서울코퍼스」는 화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일상적인 주제부터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화한 내용을 전사한 자연발화 코퍼스로, 100% 구어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강범모(1998)가 분석한 「고려대학교 한국어 말모듬 1」은 대부분 주로 신문과 잡지, 책 등에서 추출한 문어 자료(written texts)이다. 구어 자료는 전체 코퍼스의 12%에 불과한데, 이조차도 준구어를 합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구어 자료는 그보다 더 낮다. 구어 코퍼스와 문어 코퍼스는 사용된 단어나 구문 등에서 상이할 뿐 아니라, 발화의 내용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런 구조적, 내용적 차이는 재귀사가 사용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산출실험 결과는 이런 가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즉, 산출실험에서는 구어가 아니라 문어 산출을 유도하였는데, 강범모의 문어 코퍼스에서처럼 ‘자신’의 빈도수가 ‘자기’보다 높았던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이 모두 가능한 한국어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이해와 발화라는 언어처리 과정에 따라 어떤 결속영역 선호도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자연발화에서의 재귀사 결속영역과 비교하여, 연구방법론에

따른 차이점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해실험과 발화실험에서 ‘자기’와 ‘자신’은 둘 다 장거리결속을 선호하였고, ‘자기 자신’은 국지결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차분석 결과는 ‘자기’와 ‘자신’의 상대적 결속영역 선호도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기’는 국지결속에 비해 장거리결속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였고, ‘자신’은 국지결속의 상대적 선호도가 장거리결속보다 높았다. 즉, 두 재귀사의 전체적인 선호도 양상은 장거리결속으로 동일하지만, 국지결속과 비교했을 때 장거리결속을 선호하는 비율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이해실험보다 발화실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기’와 ‘자기 자신’은 이해와 발화에서 동일한 결속 양상을 보였으나, ‘자신’은 이해 상황에 비해 발화 상황에서는 장거리결속 경향이 약해졌다. 이런 결과는 한국어 재귀사의 결속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발화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해실험에서도 세부적인 연구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은 장거리결속 또는 국지결속을 유도하는 문맥을 제시하고 재귀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되는 결속 양상은 화용적 정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본 연구의 이해실험은 중립적인 문맥에서 재귀사의 결속 양상을 조사하여, 문맥 정보가 재귀사의 선행사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 특히, ‘자기’와 ‘자기 자신’은 각각 이해와 발화에서 동일한 결속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이 재귀사들의 통사적, 형태소적인 특성에 근거한 본질적인 결속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은 특정 결속영역을 선호하지 않고, 언어처리 과정이나 현저성 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발화 코퍼스의 분석 결과는 산출실험 결과와 차이점을 보인다. 이 결과 또한 장거리결속과 국지결속을 둘 다 유도하는 산출실험과 국지결속이 주를 이루는 자연발화의 차이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코퍼스는 재귀사의 자연스러운 사용을 보여준다는 장점은 있으나, 장거리결속이 가능한 복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귀사의 장거리결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재귀사, 특히 결속영역의 중의성을 갖는 재귀사 ‘자기’와 ‘자신’의 결속 양상은 연구방법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이해실험 연구들의 결과만으로 한국어 재귀사의 결속 양상에 대해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 연구들이 주장하듯 한국어 재귀사의 해석에 있어서 화용적 요인이 중요하지만, 이는 이해실험에만 근거한 결론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산출실험 및 코퍼스 분석 결과는 발화 상황에서는 화용적 요인보다 통사적 특징이나 형태소적 특징(단순형/복합형)이 더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세 종류의 재귀사를 이해와 발화 실험 그리고 코퍼스 분석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재귀사의 결속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해 및 산출실험은 모두 오프라인 실험으로, 실험 참가자들의 언어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실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구어 발화가 아닌 문어 산출만 실험적으로 조사한 것과, 「서울 코퍼스」의 규모가 작다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한국어 재귀사의 결속 양상을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여러 요인들을 정교하게 통제된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강범모. (1998). 문법과 언어 사용-코퍼스에 기반한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학*, 31, 165-204.
- 김수정, 홍우평, 박기효, 이선경, 옥설아, 강가영, 남윤주. (2022). 한국어 대용어 결속원리의 심리적 실재성. *통일인문학*, 90, 255-290.
- 김용석. (1994). 재귀사의 장거리 결속 현상에 관한 자질 검사 이론적 접근. *언어연구*, 12, 29-51.
- 김원호. (2013). 한국어의 재귀대명사: 형태와 기능. *언어과학*, 20(1), 25-44.
- 목정수, 조서희. (2019). 이중 주어 구문 새로 보기-기본문형 설정과 관련하여. *국어국문학*, 196, 5-48.
- 박강희. (2002). 영.중.일.한. 재귀사 결속특징. *국제언어문학*, 6, 221-238.
- 박강희. (2019). 단순, 복합재귀사 인칭별 비결속 제약. *언어연구*, 35(2), 185-197.
- 양동휘. (1990). 대용화의 논리 형태. *성곡논총*, 21, 719-760.
- 엄홍준. (2014).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속성. *언어*, 39(4), 899-919.
- 엄홍준. (2015). 한국어 재귀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구조. *현대문법연구*, 82, 53-65.
- 이선영, 서지혜, 정해권. (2017).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처리 기제: 행동 반응 시간을 바탕으로. *언어와 언어학*, 74, 229-248.
- 최광일, 김영진. (2003). 재귀대명사의 다의성 해소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5(2), 239-257.
- 최광일, 김영진. (2007). 재귀대명사의 다의성 해소과정: 안구운동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19(4), 263-277.
- 함병호. (2018). 이중 주어 주문의 정보구조. *한국어학*, 81, 325-360.
- Brennan, S. (1995). Centering attention in discours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0(2), 137-167.
- Cho, S.-W. (2006). The syntactic and semantic ambiguity of caki 'self' in Korean.

- Korean Linguistics*, 12(1), 149-165.
- Chomsky, N.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 1-46.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Clark, E. V., & Hecht, B. F. (1983). Comprehension, production, and language acquis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4, 325-349.
- Flynn, S. (1986). Production vs. comprehension: differences in underlying competenc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2), 135-164.
- Joo, K.-J. (2017). Children's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reflexive pronouns *caki* and *caki-casin*. *Language Acquisition*, 24(4), 417-419.
- Kim, J.-H., & Yoon, J. (2008). An experimental syntactic study of binding of multiple anaphors in Korean.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9, 1-30.
- Kim, J.-H., Montrul, S., & Yoon, J. (2009). Binding interpretations of anaphors by Korean heritage speakers. *Language Acquisition*, 16(1), 3-35.
- Lee, K.-Y. (2008). The role of pragmatics in reflexive interpretation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In *Proceedings of the 2007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 Lee, S.-Y. (2012). The acquisition of Korean reflexive *caki* by heritage speakers and L2 learner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2), 383-400.
- Leverato, M. C., & Cacciari, C. (1995). The effects of different tasks on the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idioms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60(2), 261-83 .
- O'Grady, W. (2013). Processing and language acquisition: reflexive pronouns in English and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Society*, 19, 33-59.
- Patterson, C. (2012). The effect of local discourse coherence on pronoun resolution: an eye-tracking study. *Essex Graduate Student Papers in Language and Linguistics*, 13, 96-119.
- Reinhart, T., & Reuland, E. (1993). Reflexivity. *Linguistic Inquiry*, 24(4), 657-720.
- Rohrbaher, B. (1999). *Morphology-driven syntax: A theory of V to I raising and pro-drop*.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Stoet, G. (2010). PsyToolkit: A software package for programming psychological experiments using Linux. *Behavior Research Methods*, 42, 1096-1104.

Yun, W.-H., Yoon, K.-C., Park, S.-W., Lee, J.-H., Cho, S.-M., Kang, D.-S., Byun, K.-H., Hahn, H.-S., & Kim, J.-S. (2015). The Korean corpus of spontaneous speech.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7(2), 103-109.

김만경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박사 졸업생
이메일: kmkpaul@hanyang.ac.kr

이미선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로 222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화: (02)2220-0744
이메일: mlee@hanyang.ac.kr

Received on August 11,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30, 2022

Accepted on September 30, 2022